

## 뜻밖의 시련을 당했을 때

### I didn't stop...it was taken away

-노마 스티븐(Norma Steven)

*기대하지 않은 인생의 장애들이 자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죽기 전에 했던 간단한 인터뷰에서, 코미디극 피너츠(Peanuts)의 창시자 찰스 슐츠(Charles Schultz)는 “왜 은퇴하려고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가 앞당겨졌다고 말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지역 뉴스거리도 되지 않게 되었지만 나는 사실 계속 사역하고 싶었다. 68세 때까지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리더로서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의 갑작스러운 작은 발작이 나의 소망에 제동을 걸었다.

#### 옴의 시련

옴도 슐츠처럼 느꼈을 것이다. 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유능한 농부와 유명한 지주가 되고 싶었다. 그는 계속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심지어 옴기 1장 5절은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옴 1:21)라는 것이었다.

옴과 같은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도 인생의 고통에 직면하였다. 조니 에릭슨 타다(Joni Eareckson Tada)는 전신이 마비되었을 때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게 된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았고, 수잔나 웨슬리(Susanna Wesley)가 기도했을 때처럼,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의 사위는 교회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현상 유지나 하려는 그들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드러냈을 때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사실 그는 사역을 빼앗긴 것이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아시며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를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와 그의 아내와 가족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다.

내 친구의 아들은 어린시절의 애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부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중단되고 말았다.

##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스런 마음과 커다란 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셨다. 그 때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과연 십자가뿐이었을까?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사람들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믿는다. 그분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33세에 갑자기 지상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만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의 인성을 잊어버리기 쉽다.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수잔나 웨슬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이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질병이나 노년, 또는 불운, 혼란한 상황과 같은 시련들이 갑자기 다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사실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화내거나 비통할 수도 있고 수잔나 웨슬리처럼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때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두 아시며, 고통의 과정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 이 글은 도서출판 두란노가 발간하며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10월호(통권 160호) 186-187페이지에 실렸던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